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한경BUSINESS** 국제면 기고)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2010년 9월부터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 국제(Global) 면에 정기적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러시아, 일본, 브라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호주 등 한국기업 및 자본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각국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기고되는 내용은 지평지성 Global Business Newsletter에 모아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851호 - 미얀마] 외국인 투자 늘어나는 미얀마

'은둔의 나라' 미얀마가 개방의 기지개를 켜고 있다. 작년 3월 민선 정부가 들어선 이후 새 정부의 혁신 조치와 외국의 발 빠른 대응이 교차되고 있다. 작년 11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문을 신호탄으로 대규모 정치범 석방, 영국과 프랑스 외무장관 방문, 일본 경제 사절단 방문, 소수민족 반군들과의 평화 협상 타결, 아웅산 수치의 4월 보궐선거 순회 유세, 미얀마 정부 대표단의 다보스 회의 참석 등을 보면 알 수 있다...(중략)

양영태 법무법인 지평지성 대표변호사 · 글로벌비즈니스센터장

- [제851호 한경비즈니스 인터넷 페이지](#)